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변정수 · 출판컨설턴트

몇 해 전의 일이다. 출판 편집자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재미있는 질문이 올라왔다. 연결 어미 '-든'과 '-건' 가운데 어떤 표현이 옳은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이런 표현들에 관해 맞다거나 틀리다는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처음엔 질문이 꽤나 생똥맞게 여겨지기까지 했다. 오히려 '왜 그런 의심을 가졌는지'를 되묻고 싶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내 '언어 규범에 얼마나 주눅 들어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를 진지하게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 연결 어미 '-든'과 '-건'은 거의 완벽하게 호환이 가능하다. 그것은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표준적인' 규범적 기준이 있을 것이라 짐작하는 건, 실은 대다수의 언중이 '표준어'에 관해 가진 통념에 비추어 그리 이상하지도 않은 일이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워 왔고, 최근에는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서까지 '무식'을 질타당하면서, '맞는 말'과 '틀린 말'을 가리도록 교육과 계몽의 객체가 되어 왔다. 게다가 대개 이렇게 규범적인 태도로 '표준어'를 강조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실제로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 바람에 원활한 의사소통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보편적인' 표현을 제시해 주기보

다는 대다수 언중들이 일상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틀린 말’이라고 딱지를 붙이는 데 치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다 보니 수십 년 동안 입에 붙은 익숙한 말조차도 ‘틀린 말’이 아닌지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말 한 마디도 세심하게 가려 쓰려는 노력은 매우 훌륭한 자세이지만, 그것이 지나쳐 ‘맞는 말’과 ‘틀린 말’을 규범적으로 강박하는 것은 선후와 본말을 뒤바꾼 것이다. 가령 ‘총각김치의 재료가 되는 무’를 ‘알타리무’라고 표현해야 할 필연적인 까닭도 ‘총각무’라고 표현해야 할 필연적인 까닭도 없듯이, 말에는 본디 ‘맞는 말’이나 ‘틀린 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가 특정한 표현을 ‘표준어’로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근거는 실제로 대다수의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널리 통용된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경험적인 사실에 있을 따름이다. 현실적으로 ‘알타리무’가 ‘총각무’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도 ‘총각무’만을 표준어로 인정하여 ‘알타리무’를 ‘총각무의 잘못’이라 못 박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실제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복수 표준어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며 앞으로 더욱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전히 ‘잘못된 말’로 규정당한 ‘비표준어’들이 존재하는 한, 아무리 많은 어휘들을 ‘표준어’로 감싸 안는다 하더라도 ‘언 발에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왜 ‘-길래’는 ‘-기에’와 함께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면서 ‘알타리무’나 ‘까탈스럽다’는 누락되었는지 따위의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고, 설령 앞으로 더 많은 어휘들이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다 해도 또 다른 어휘들이 시뻘거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전향적으로 복수 표준어로 인정되는 어휘를 추가해 나가는 방식으로 ‘표준어’를 언어 현실에 근접시키려는 노력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보다 선행해야 할 것은 좀 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다. 현실적으로

‘표준어’의 테두리를 일정하게 설정해 두는 작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과연 ‘표준어’가 ‘맞는 말’과 ‘틀린 말’ 또는 ‘옳은 말’과 ‘그른 말’을 가르키는 ‘규범’인지, 그 성격부터 분명히 해 두자는 것이다. 나는 오래 전부터 출판 현장의 편집자들에게 어문 규범을 가르치면서, 표준어란 ‘규범’이 아니라 ‘정보’일 뿐이라고 역설해 왔다. 예컨대 ‘총각무’가 표준어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것은 ‘총각무’가 ‘맞는 말’이니 ‘알타리무’라고 쓰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대다수의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총각무’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다른 모든 ‘정보’들이 그러하듯이, ‘표준어’에 관한 정보도 당연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최신 정보의 업데이트’가 지연될 수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정보 가치의 판단 또한 전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는 사람의 종합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 가령 ‘문제는 까다롭지만 사람은 까탈스럽다.’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운 내게, ‘까탈스럽다’는 ‘까다롭다의 잘못’이라는 ‘정보’는 대체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은 ‘하잘것없는’ 정보이다.

이러한 내 생각을 정책의 차원에서 피력하자면, 어문 규범으로서의 ‘표준어 규정’ 자체를 폐기하자는 것이다. 표준어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모아 놓는 것으로 족하며, 특정한 어휘가 표준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가 기관이 일률적인 규범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사전 편찬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전에는 표준어로 올라 있는 말이 다른 사전에는 누락될 수도 있으며, 언어 변화에 보수적이어서 가령 ‘너무’를 ‘지나치게’라는 부정적인 맥락에서만 쓰인다고 풀이하는 사전이 있는 반면, 좀 더 개방적으로 본래 뜻 외에도 ‘아주, 매우’ 등의 뜻의 긍정적인 쓰임도 있다고 파생 의미까지 기술한 사전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다양한 사전들 가운데 대다수의 언중들이 언어 현실을 가장 적절하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전이 좀 더 높은 권위를 스스로 확보하게 될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사전은, 실제로 적잖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표현을 ‘잘못된 말’이라고 함부로 못 박지 않는 사전이다. 물론 그 모든 표현들이 다 ‘표준어’로 인정될 만한 ‘보편성’을 지닌 말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비표준어’라고 싸잡기보다는 ‘제한된 사용 범위’를 섬세하게 제시해 주면 좋을 것이다. 요컨대 ‘-길래’도 ‘-기에’와 함께 표준어(=맞는 말)로 인정한다는 것은 기실 ‘-기에’는 옳고 ‘-길래’는 틀렸다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보다는 가령 ‘-기에’는 주로 격식을 갖춘 문어체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고 ‘-길래’는 주로 구어체에서 두루 사용된다는 식의 정보를 폭넓게 담아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규범 체계로서의 ‘표준어 규정’의 존재는 이런 다양한 사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이 조성되는 데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가령 ‘바람’을 ‘바람’과 다름없는 자격으로(또는 심지어 더 중심적으로) 다루는 사전이 이미 ‘바람’은 ‘비표준어’라는 규정을 알고 있는 언중들에게 신뢰를 얻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익숙하게 사용해서 입에 붙은 말을 억지로 쓰지 못하게 가로 막거나, 그 대신 좀처럼 입에 붙지 않는 낯선 말을 억지로 쓰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설령 가능하다 해도 그 자체로 민주 사회에는 걸맞지 않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혹시라도 내게는 무척 익숙한 표현이지만 보편성이 떨어져 의사소통에 지장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내가 감수해야 할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은, 실제 언어 현실에서 어떤 어휘가 얼마나 보편적으로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이지, 제한된 범위일망정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어휘를 ‘잘못된 말’이라고 재단하는 ‘규범’이 아니다.

특정 어휘를 ‘표준어’의 범위에 넣을지 말지는 규범적인 차원에서 논 의할 문제가 전혀 아니며, 단지 ‘정보 체계’로서의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과제일 뿐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절실하다.